AirzinePlus

항공운송 동향분석

# 2011년 11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국토해양부
Airportal 항공정보포탈시스템
한국항공진흥협회 KADA KOREA CIVIL AVI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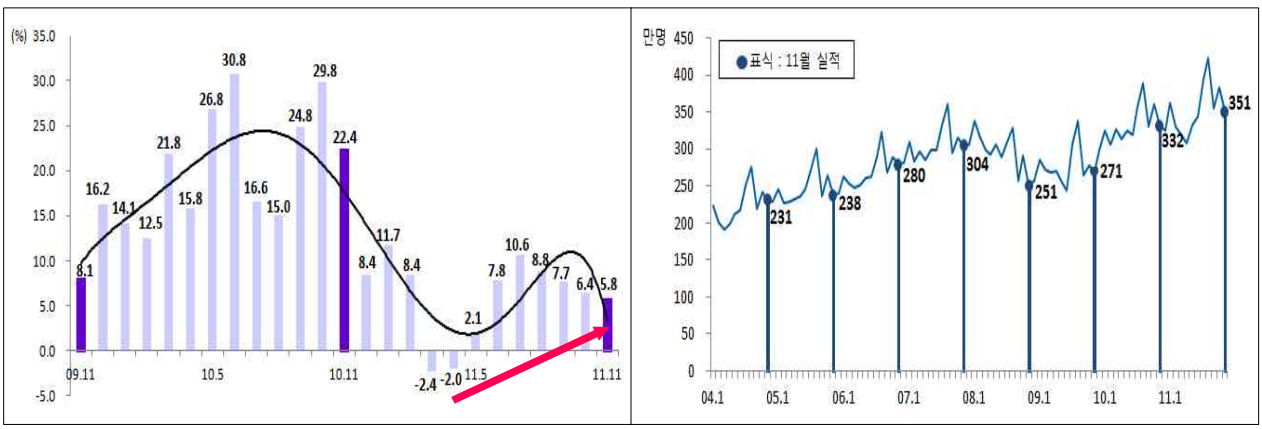
# ’11년 11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글로벌 금융 및 경기불안 지속, 선진권과 신흥권의 탈동조화현상(Decoupling), 비즈니스 수요 감소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여객은 전년대비 5.8% 증가하며 역대 월별 최대실저 기록을 지속한 반면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3.0% 감소하며 침체기 지속

## 국제여객

2011년 11월 국제여객은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원화약세로 인한 방한외래 관광수요 증가 및 환승수요 호조세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3,506,969명을 달성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아래 〈그림 1〉은 국제여객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과 실적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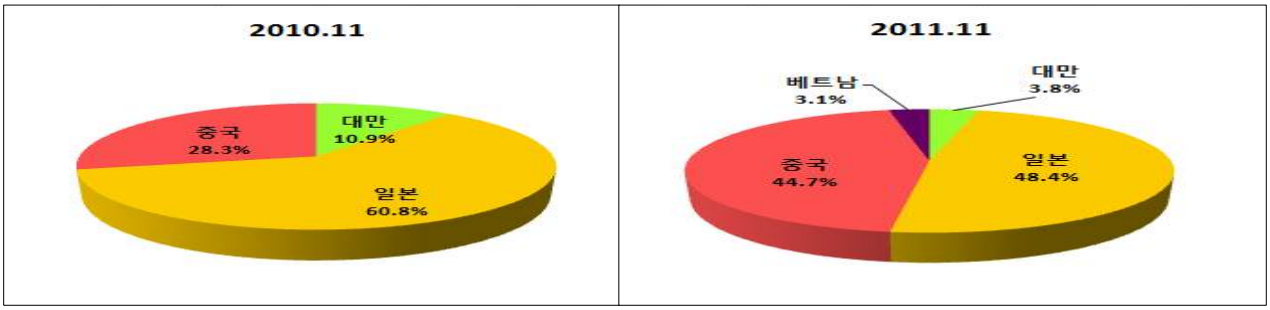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문화관광부 주최 외래관광객 900만명 돌파 기념행사(좌), 개항 이래 최대 환승여객 수 전망되는 인천공항의 모습(우) (자료출처: 연합뉴스)

아래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11월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7.5%,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공항은 제주공항으로, 일본과 중국인 관광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주공항의 노선별 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일본노선이 60.8%, 중국노선이 28.3%를 점유하며 일본노선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2011년에는 일본과 중국노선이 각각 48.4%, 44.7%를 점유하면서 비중이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 일본노선은 오사카를 제외한 노선이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중국노선은 대련을 제외한 노선이 여객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0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제주공항 국제여객 노선비중 변화

그 뒤를 이어 김포공항이 전년대비 22.7%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약 78% 점유하는 일본노선이 전년대비 7.3% 증가하였고, 약 22% 점유하는 중국노선은 전년대비 15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노선은 11월 김포-홍차오노선이 전년대비 22.2% 증가하고, 김포-베이징노선이 홍차오노선의 약 6.9% 많은 여객수요를 발생시키면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대구 · 청주공항은 운항이 전년대비 각각 29.7%, 23.0% 감소하며 여객수요도 전년대비 24.2%,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공항의 경우 전 노선이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청주공항은 홍수사태 영향을 받은 태국노선이 전년대비 68.9% 감소하고 중국노선은 전년대비 18.4%로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 구 분 | 운 항 | | | 여 객 | | |
|---|---|---|---|---|---|---|
| | '10년 11월 | '11년 11월 | 전년대비 | '10년 11월 | '11년 11월 | 전년대비 |
| 인 천 | 17,573 | 18,353 | 4.4% | 2,678,711 | 2,761,001 | 3.1% |
| 김 포 | 1,436 | 1,681 | 17.1% | 281,693 | 345,745 | 22.7% |
| 김 해 | 1,952 | 2,471 | 26.6% | 273,850 | 310,988 | 13.6% |
| 제 주 | 389 | 503 | 29.3% | 52,725 | 67,039 | 27.1% |
| 청 주 | 148 | 114 | △23.0% | 16,437 | 10,925 | △33.5% |
| 대 구 | 74 | 52 | △29.7% | 7,825 | 5,932 | △24.2% |
| 무 안 | 35 | 36 | 2.9% | 3,498 | 3,655 | 4.5% |
| 양 양 | 0 | 16 | | 0 | 1,684 | |
| 여 수 | 2 | 0 | | 292 | 0 | |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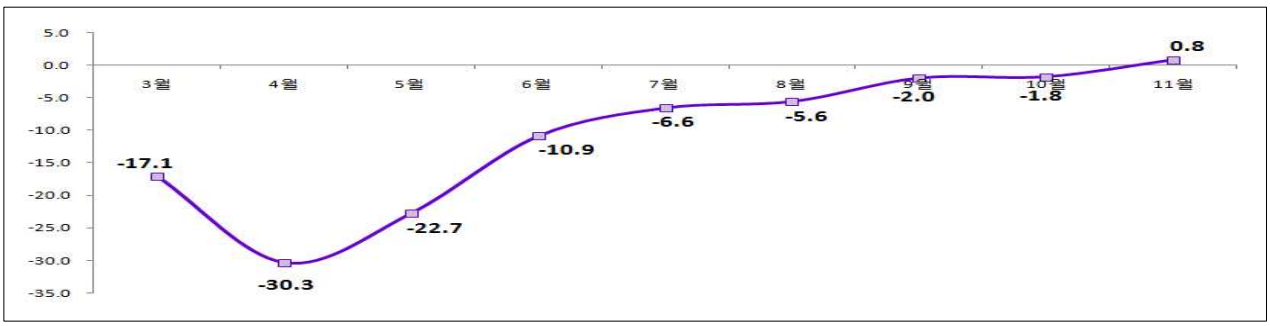
| 구 분 | 일 본 | 중 국 | 동남아 | 미 주 | 유 럽 | 대양주 | 기 타 |
|---|---|---|---|---|---|---|---|
| '10년 11월 | 947,302 | 702,084 | 1,044,333 | 279,880 | 187,691 | 108,012 | 45,729 |
| '11년 11월 | 954,715 | 732,246 | 1,148,757 | 290,025 | 200,396 | 128,217 | 52,613 |
| 전년대비 | 0.8% | 4.3% | 10.0% | 3.6% | 6.8% | 18.7% | 15.1% |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전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일본과 미주지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 지역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노선의 경우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11월 8개월 만에 전년대비 0.8%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지진 발생이후 성상세의 추이는 △17.1%(3월) → △30.3%(4월) → △22.7(5월) → △10.9(6월) → △6.6(7월) → △5.6(8월) → △2.0(9월) → △1.8(10월) → 0.8(11월)로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센다이공항의 운항재개(9.25), 엔화 강세로 인한 방한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11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월부터 태국 대홍수사태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던 동남아노선은 11월 전년대비 10% 증가하며 여객수요가 전월에 비해 더욱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3월 대지진발생이후 일본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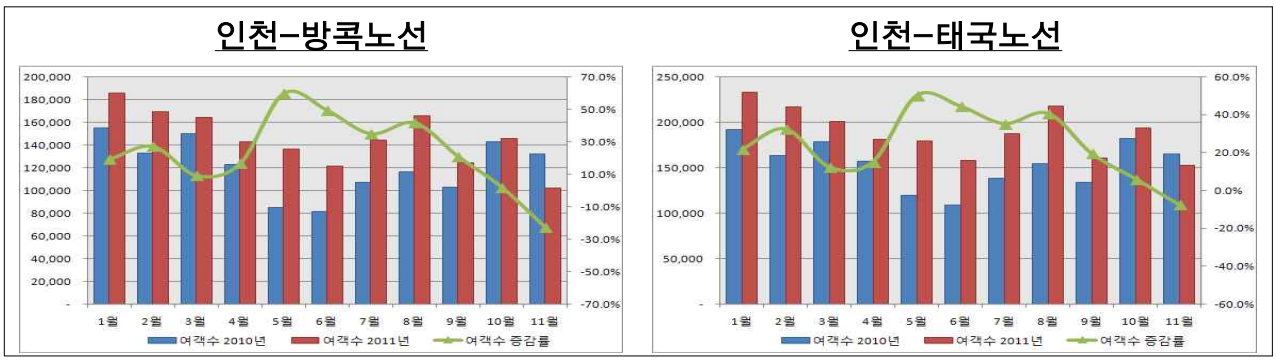
〈표 3〉 태국의 여객실적 비교

| | 2010.11 | 2011.11 | 전년대비 | 2010.1~11 | 2011.1~11 | 전년대비 |
|---|---|---|---|---|---|---|
| 방 콕 | 154,286 | 117,833 | △23.6% | 1,527,620 | 1,872,185 | 22.6% |
| 치앙마이 | 5,791 | 10,929 | 88.7% | 38,413 | 57,127 | 48.7% |
| 푸 켓 | 29,366 | 43,084 | 46.7% | 335,194 | 442,122 | 31.9% |
| 우타파오 | | | | 3,984 | 13,600 | 241.4% |
| 태국 계 | 189,443 | 171,846 | △9.3% | 1,905,211 | 2,385,034 | 25.2% |

〈표 3〉을 통해 태국의 여객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1월 누계기준으로 태국은 전년대비 25.2% 증가하였으나 11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9.3% 감소하면서 방콕 침수로 인한 피해영향이 전월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3월 지진 발생이 일어난 후 4월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태국 또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수 피해가 극심하였던 방콕은 누계기준 22.6% 증가한 반면 11월 실적은 23.6% 감소함으로써 매우 대조된 양상을 보이며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주었다. 우리나라-동남아 노선에서 태국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태국노선에서 방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전체 동남아노선의 약 16%)로 전체 동남아노선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2월 본격적인 동계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전세기 운항편 추가 및 확대로 인하여 감소되었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4〉 인천공항 태국/방콕 11월 여객실적 추이

중국과 미주노선은 전년대비 4%대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중국의 경우 긴축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주의 경우 경기지표의 개선 등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7.2%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9배 증가하여 5.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0.1%('08.11) → 0.8%('09.11) → 2.9%('10.11) → 5.1%('11.11)

11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운항 및 공급좌석 확대에 따른 환승여객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46만 명, 환승률은 16.5%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 누계기준으로 환승여객은 5,159,559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하며 2011년 인천공항 환승여객실적은 2001년 개항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선별로 보면 동남아와 미주지역이 전년대비 1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일본과 유럽의 감소분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공항은 중국 · 일본 · 동남아에 90여개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미주와 유럽에서 아시아 여행 시 주변국 경쟁공항보다 경쟁우위를 확보, 지속적인 환승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향후 잠재수요를 더욱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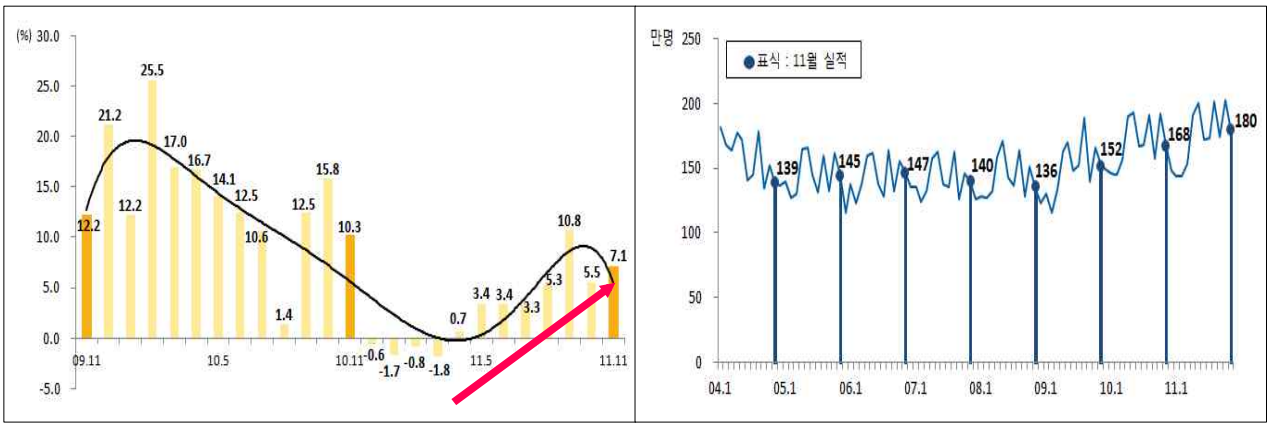
* 환승여객 : 45만명('09.11) → 42만명('10.11) → 46만명('11.11)
* 환 승 률 : 20.1%('09.11) → 15.6%('10.11) → 16.5%('11.11)

**〈표 4〉 인천공항과 경쟁공항의 연결 노선 수 비교**

| 구 분 | 인천공항 | 일본<br>나리타공항 | 중국<br>베이징공항 | 중국<br>푸동공항 |
|---|---|---|---|---|
| 중국, 일본,<br>동남아 노선 수(개) | 92 | 47 | 19 | 36 |

## 국내여객

11월 국내여객은 외래객 제주여행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운임할인이벤트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1,796,742명을 달성하였다. 지난 6~8월 3%의 성장세로 둔화현상을 보이다 9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국내여객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KTX 개통 영향권 공항들의 여객수요 감소를 반영한 다양한 운임할인 이벤트[1]가 개최됨에 따라 내륙노선의 여객감소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5〉 제주노선 vs 내륙노선 비교

| 구 분 | 제주노선 | | 내륙노선 | |
|---|---|---|---|---|
| | 여 객 | 탑승률 | 여 객 | 탑승률 |
| '10년 11월 | 1,257,974 | 77.9% | 419,433 | 67.4% |
| '11년 11월 | 1,389,126 | 82.2% | 407,616 | 64.7% |
| 전년대비 | 10.4% | 4.2%p | △2.8% | △2.8%p |

1) 한국공항공사 항공운임할인 시범시행 : 김포↔부산, 김포↔울산, 김포↔포항 및 김포↔여수 노선 중 일부시간대 항공운임을 온라인 승객에 한하여 12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할인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11월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은 전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내륙노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보이며 국내여객수요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률을 살펴보면 제주노선은 전년대비 4.2%포인트 상승한 82.2%를 기록하였고,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2.8% 포인트 하락한 64.7%를 기록하였다.

〈표 6〉를 통해 공항별 운항 및 여객실적을 보면 대구 · 여수 · 울산 · 사천공항을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공항 대부분이 KTX 개통 영향권 공항들로, 대구 · 울산공항은 운항이 감소함에 따라 여객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여수공항은 운항이 1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여객수요가 11%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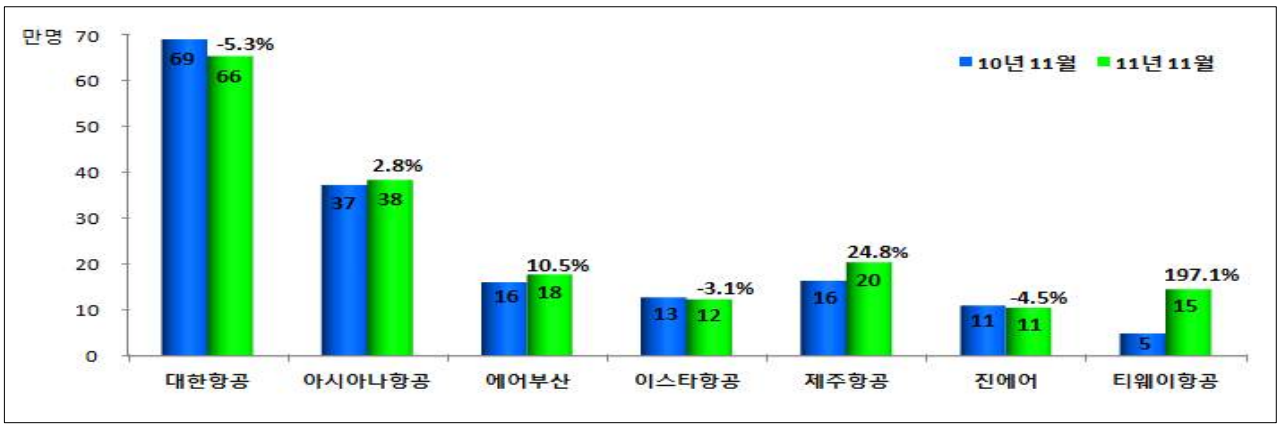
제주공항의 경우 여객이 전년대비 10.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운임할인 이벤트, 방한 외래 방문객의 여행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제주노선의 대형국적사의 운항 및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각각 2.4%, 1.6% 감소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및 여객은 전년대비 각각 15.7%, 27.4% 증가하면서 제주를 여행하는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757,128명, 분담률은 전년대비 5.7%포인트 상승한 42.1%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13.2%('08.11) → 31.8%('09.11) → 36.5%('10.11) → 42.1%('11.11)

## 〈표 6〉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 구 분 | 운 항 | | | 여 객 | | |
|---|---|---|---|---|---|---|
| | '10년 11월 | '11년 11월 | 전년대비 | '10년 11월 | '11년 11월 | 전년대비 |
| 제 주 | 4,181 | 4,416 | 5.6% | 638,590 | 704,666 | 10.3% |
| 김 포 | 4,280 | 4,372 | 2.1% | 582,055 | 623,365 | 7.1% |
| 김 해 | 1,583 | 1,648 | 4.1% | 207,863 | 221,875 | 6.7% |
| 광 주 | 435 | 446 | 2.5% | 55,916 | 58,775 | 5.1% |
| 청 주 | 304 | 330 | 8.6% | 47,551 | 48,789 | 2.6% |
| 대 구 | 300 | 299 | △0.3% | 43,436 | 41,701 | △4.0% |
| 울 산 | 342 | 234 | △31.6% | 29,202 | 25,381 | △13.1% |
| 여 수 | 218 | 241 | 10.6% | 28,055 | 24,964 | △11.0% |
| 인 천 | 189 | 196 | 3.7% | 17,485 | 19,045 | 8.9% |
| 포 항 | 124 | 159 | 28.2% | 11,093 | 11,939 | 7.6% |
| 군 산 | 59 | 59 | 0.0% | 6,742 | 6,963 | 3.3% |
| 사 천 | 71 | 71 | 0.0% | 5,844 | 5,331 | △8.8% |
| 원 주 | 29 | 29 | 0.0% | 2,995 | 3,403 | 13.6% |
| 무 안 | 8 | 8 | 0.0% | 580 | 545 | -6.0% |




## 〈그림 6〉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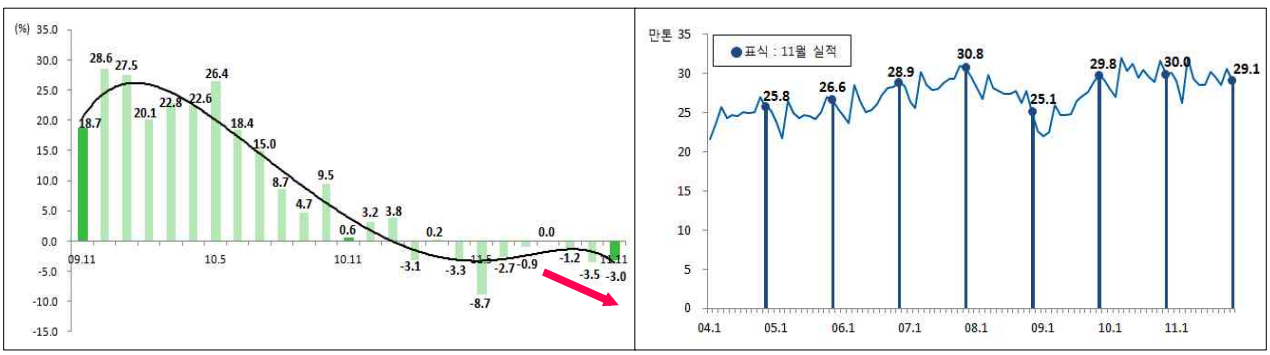
## 항공화물

11월 항공화물은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유럽 · 중국의 제조업경기 둔화세가 확대되는 등 글로벌 경기 재 침체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3.0% 감소, 10개월 연속 감소세유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46.4로 29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제조업 PMI는 전월(50.4)보다 1.4포인트 급락한 49.0을 기록하며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위축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IT제품 구매위축, 소형화 트렌드로 인한 중량감소 등으로 수요가 지속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4.7% 감소한 265,806 톤을 기록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24,963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5%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11월 전년대비 6.1%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전체 항공화물실적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2] 제주공항이 11월 전년대비 48.6% 증가, 김포공항이 11월 전년대비 4.9%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2) 제주공항: 2011년 11월 기준 51.8% 점유, 김포공항: 2011년 11월 기준 25.9% 점유

## 〈표 7〉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 구 분 | 일 본 | 중 국 | 동남아 | 미 주 | 유 럽 | 대양주 | 기 타 |
|---|---|---|---|---|---|---|---|
| '10년 11월 | 39,867 | 50,594 | 71,717 | 56,874 | 51,765 | 4,501 | 3,685 |
| '11년 11월 | 38,743 | 46,394 | 70,159 | 53,048 | 49,169 | 4,576 | 3,716 |
| 전년대비 | △2.8% | △8.3% | △2.2% | △6.7% | △5.0% | 1.7% | 0.8% |

〈표 7〉은 지역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 등 주요 선진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인하여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화물시장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11월은 중국이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하며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유럽발 금융 불안에 따른 생산과 신규주문 등이 부진을 보이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미주지역이 전년대비 6.7% 감소하며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11월 제조업지수가 전월대비 1.9포인트 상회하면서 5개월 이래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지속, 고용부진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IT 주요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중국이 모두 경기부진 영향으로 지속 침체되는 점은 4/4분기 항공화물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지식경제부 자료(금액기준)에 의하면 11월 IT제품 수출은 태국홍수,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과 D램, LCD 패널 등 주력 품목의 단가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홍수사태로 인한 HDD 공급 차질은 PC가격

을 상승시켰고 이는 다시 판매부진과 수요 감소를 유발시킴으로써 D램 가격하락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년대비 각각 33.9%, 52.2% 감소하는 등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0.9% 감소하면서 회복세를 보였고, 휴대폰은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 미국 · 유럽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업체의 감산 등으로 전월대비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11) 16.0% → ('11.11) △2.5%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11) 27.4% → ('11.11) △2.8%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11월 99,324톤으로 전년대비 5.0% 감소, 환적률은 전년대비 1.3%포인트 상승한 44.0%를 기록하였다.

### 〈표 8〉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 분 | 반도체 | 패 널 | 휴대폰 | 전 체 |
|---|---|---|---|---|
| 전 체 | 40.9 (△0.9) | 26.6 (△2.5) | 18.8 (△29.8) | 132.6 (△2.5) |
| 중국(홍콩포함) | 21.1 (△0.0) | 19.9 (3.1) | 3.9 (△14.5) | 62.2 (6.6) |
| 미 국 | 1.9 (△33.9) | 0.1 (△53.3) | 7.3 (△24.7) | 15.0 (△17.2) |
| 일 본 | 2.6 (△0.7) | 0.2 (△80.4) | 2.7 (98.7) | 7.9 (3.6) |
| E U | 1.5 (△52.2) | 3.3 (4.9) | 1.7 (△62.1) | 11.1 (△32.7) |

(출처: 지식경제부)

## 10월 공항 출입국동향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등 외국인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10월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3.3% 증가하고, 내국인 출국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84만 명, 내국인 출국은 1.2% 감소한 95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53.2% 수준이었다.[3)]

* 전체 출입국자 : 202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179만 명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10월 76만 명 → '11.10월 84만 명)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10월 96만 명 → '11.10월 95만 명)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4.7%,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2.2%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김포와 김해 공항을 통한 외래객입국이 전년대비 20%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국인 출국의 경우 김포공항은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은 다소 감소하였다.

### 〈표 9〉 출입국 현황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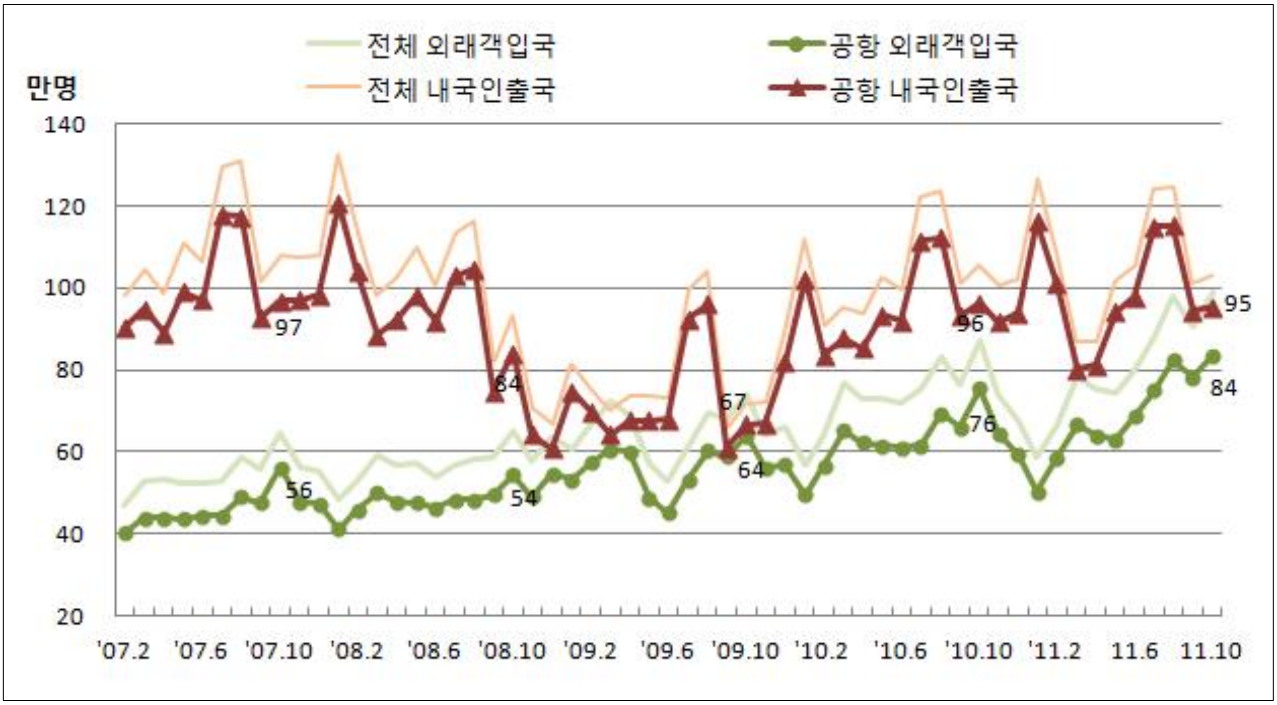
| 구 분 | 공항 | | | | | 공항 | 비율 | 항구 | 비율 | 합계 |
|---|---|---|---|---|---|---|---|---|---|---|
| | 인천 | 김해 | 김포 | 제주 | 기타 | | | | | |
| 외래객입국 | 605 | 65 | 115 | 47 | 5 | 837 | 84.7 | 152 | 15.3 | 988 |
| 내국인출국 | 754 | 112 | 68 | 4 | 15 | 952 | 92.2 | 80 | 7.8 | 1,033 |
| 계 | 1,358 | 177 | 183 | 51 | 20 | 1,789 | 88.5 | 232 | 11.5 | 2,021 |

3)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 〈표 10〉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외래객 입국 | | | | 내국인 출국 | | | | 내국인 비율 (%) |
|---|---|---|---|---|---|---|---|---|---|
| | '10. 10월 입국 | '11. 10월 입국 | 증감 (%) | 점유 (%) | '10. 10월 출국 | '11. 10월 출국 | 증감 (%) | 점유 (%) | |
| **공 항** | 756,251 | 836,697 | 10.6 | 84.7 | 963,798 | 952,492 | -1.2 | 92.2 | 53.2 |
| · 인천 | 562,033 | 604,629 | 7.6 | 61.2 | 784,925 | 753,669 | -4.0 | 73.0 | 55.5 |
| · 김해 | 54,241 | 65,205 | 20.2 | 6.6 | 107,458 | 111,890 | 4.1 | 10.8 | 63.2 |
| · 김포 | 86,811 | 115,456 | 33.0 | 11.7 | 52,632 | 68,039 | 29.3 | 6.6 | 37.1 |
| · 제주 | 46,999 | 46,905 | -0.2 | 4.7 | 4,004 | 3,757 | -6.2 | 0.4 | 7.4 |
| · 기타 | 6,167 | 4,502 | -27.0 | 0.5 | 14,779 | 15,137 | 2.4 | 1.5 | 77.1 |
| 항구 등 | 116,299 | 151,623 | 30.4 | 15.3 | 91,783 | 80,097 | -12.7 | 7.8 | 34.6 |
| **합 계** | 872,550 | 988,320 | 13.3 | 100 | 1,055,581 | 1,032,589 | -2.2 | 100 | 51.1 |




〈그림 8〉 외래국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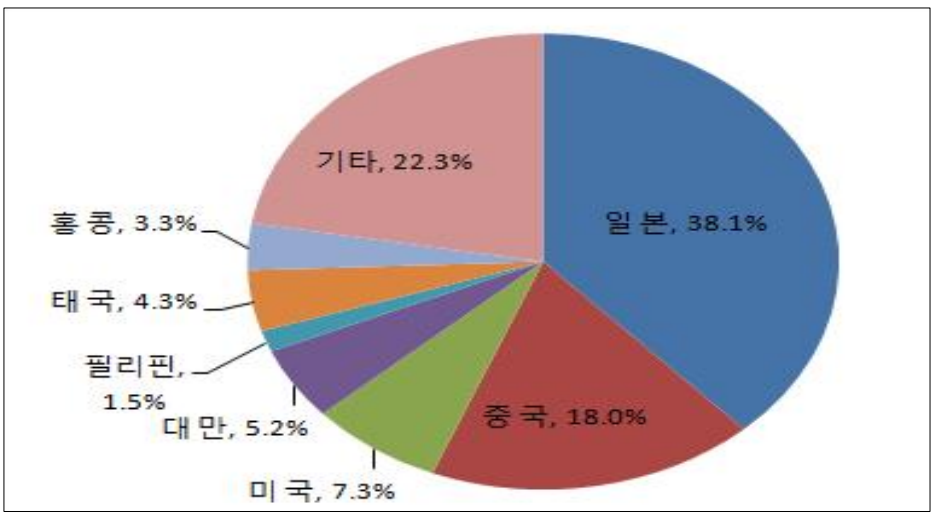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0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홍콩 국적의 외국인 입국이 전년동월대비 25%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일본인도 20.5% 증가하였다.

2011년 9월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5.4%, 중국이 25.5%, 미국이 6.2%에 해당한다.

### 〈표 11〉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전체 입국 | 인천 | 김해 | 김포 | 제주 | 공항 전체 | 성장률 (%) | 국적별 점유(%) |
|---|---|---|---|---|---|---|---|---|
| 일 본 | 340,172 | 177,053 | 31,052 | 95,939 | 14,782 | 319,009 | 12.4 | 38.1 |
| 중 국 | 214,681 | 105,972 | 8,984 | 8,683 | 24,926 | 150,393 | 10.2 | 18.0 |
| 미 국 | 65,158 | 55,674 | 2,101 | 2,065 | 177 | 60,833 | 0.2 | 7.3 |
| 대 만 | 44,002 | 37,529 | 2,976 | 206 | 2,314 | 43,457 | 10.3 | 5.2 |
| 필리핀 | 34,426 | 10,065 | 1,740 | 104 | 689 | 12,603 | 28.9 | 1.5 |
| 태 국 | 36,792 | 34,526 | 1,190 | 59 | 26 | 36,193 | 7.0 | 4.3 |
| 홍 콩 | 27,720 | 23,247 | 4,062 | 136 | 112 | 27,568 | 26.1 | 3.3 |
| 전체 | 988,320 | 604,629 | 65,205 | 115,456 | 46,905 | 836,697 | 10.6 | 100.0 |




〈그림 9〉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 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지 역 | 포함 국가 | 비 고 |
|---|---|---|
| 일 본 | 일본 | |
| 미 주 |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
| 동남아 |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
| 중 국 | 중국 | 홍콩, 마카오 제외 |
| 유 럽 |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 |
| |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
| 대양주 |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 괌, 호놀룰루 포함 |
| 기 타 |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 |
| | (아프리카) 콩고 | |
| |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 노선 | |